

## 담양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수상

지자체 보건소·권역재활병원 등 254개소 대상  
장애인 재활촉진·사회참여 사업운영 등 성과

담양군보건소는 국립재활원 주관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기관표창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 보건소 및 권역재활병원 등 25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담양군은 장애인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사업을 운

영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광주보건대 물리치료과 교수, 학생과 함께 운영한 과제 순환식 그룹운동은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능력, 상지근력, 폐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수중재활교실,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재

활프로그램 등도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과 사회 참여를 도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무안군, 승달파출소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24일 무안읍에 위치한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를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치매극복 선도기관은 치매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 주체가 동참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승달파출소는 전 직원이 치매와 트너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정보 전달,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등 다양한 치매극복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치매인식개선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61-450-5075)에서는 상담, 조기검진, 치료관리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광주 롯데첨단소재, 주삼동 경로당에 냉장고 10대 전달

지난해 12월 23일 롯데첨단소재에서 주삼동 경로당에 냉장고 10대를 전달했다.

이날 주삼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롯데첨단소재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행사는 주삼동지역발전환경위원회 주최로 이찬기 시의원, 통장단과 롯데첨단소재 사무지원 박태규 부문장,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김종진 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롯데첨단소재 박태규 부문장은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29년간 지역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

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성빈여자·무등육아원·광주애육원 위문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2월 30일 연말연시를 맞아 성빈여자(남동), 무등육아원(운림동), 광주애육원(동림동)을 방문해 위문품(쌀·화장지)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사랑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31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동

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설 방문 시간을 최소화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봉사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전해 주신 위문품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동부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를 조성해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광주 광산구, 취약계층 이동통신료 아껴준다

광주 광산구가 취약계층 4대 생활요금 감면 혜택 사업의 하나로 '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화행특별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취

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도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동통신·전기·가스·TV 4대 생활요금 감면 제도 안내, 감면 혜택 자동화 및 고도화 계기 마련,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이 취지이다.

협약 주관 세 단체는 생활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나 절차를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생활비를 아껴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시범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